



08-30 (통권 208호)
2008.08.01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국내 경기 둔화 지속
- 7월 이후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는 CD 금리

경영 노트

-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신성장 사업 발굴

사회 트렌드

- '골드 파파' 전성시대

차이나 리포트

- 최근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저널 브리프

- 혁신과정에서 직면하는 리더십 10대 딜레마

洗心錄

- 효율과 형평

□ 국내 경기 둔화 지속

- 통계청의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기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6월 99.9로 지난달보다 0.5p 하락
 - 더욱이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는 2008년 6월 지난달 대비 1.1p 하락
 - 부문별로 보면 생산 감소와 더불어 재고 증가세가 두드러짐
 - 6월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생산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7%, 전월대비 0.2%로 상승
 - 재고 증가율은 2008년 6월 15.9%로 1996년 12월 16.5%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생산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가 지속될 경우 경제 활력의 저하와 성장잠재력 하락 등의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됨

□ 7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CD 금리

-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2008년 6월말 5.37%에서 8월 1일 5.6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은행채 발행 조건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쪽으로 강화되면서 은행권은 CD 발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임
 - 주택담보대출 변동형이 90% 이상인 국내 주택대출 시장에서 CD 금리의 상승은 가계에 이자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임
- 7월 소비자 물가가 6%에 가깝게 상승함에 따라 향후 단기금리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고조될 것임

□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신성장 사업 발굴*

-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고 있어 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을 찾는 데 있어 내부기술과 역량 외에 동종업체나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와의 협력을 기피하고 독자행보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찾는 국내의 폐쇄적인 기업문화는 세계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임
- 선진기업들은 신사업 발굴 때 ‘오픈 이노베이션(열린 혁신) 방식’을 활용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함

<선진기업들의 협업 네트워크 사례>

기업	주요 내용 및 사례
프록터&갬블	·자사의 지적재산과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을 공유하는 ‘연결 그리고 발전 시스템(Connect&Develop)’을 마련함 ·각종 정보와 아이디어에서부터 사업성 검토와 시장조사 등을 위해 관련 대학교수, 정부출연 연구기관, 협력업체 연구원 등을 활용 ·세계적인 히트상품인 크레스트 전동칫솔과 프링글스 프린트 등이 탄생
인텔	·Lablet 이라는 협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국의 버클리, 카네기 멜런대, 영국의 케임브리지대, 중국의 칭화대를 상호 연결해 신사업 발굴 작업을 하고 있음
도레이 합섬	·도레이는 후쿠리쿠 지역 내 염색, 직물업RP, 현지대학, 연구소와 손잡고 협업 체제 모델인 클러스터를 만듦 ·‘콩에서 추출한 아미노스 섬유’, ‘우주선에서 쓰였던 탄소섬유’로 만든 지갑 등 수업이 많은 첨단 제품이 개발됨 ·클러스터 가입업체는 처음엔 68개였으나 현재는 106개 사로 늘어남

- 이제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존의 폐쇄적 자세에서 벗어나 개방화된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개방 방식에서는 자사의 개발 계획이 외부로 알려진다는 위험이 있지만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종 업체끼리 힘을 합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기업, 대학, 연구원, 고객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중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함

* 중앙일보(2008.07.23일자)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임

□ ‘골드 파파’ 전성시대*

- 경제적 여유와 패션 감각이 있는 40~50대 남성, 이른바 ‘골드 파파’(gold papa)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음
 - ‘외모 가꾸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중년 남성들이 자신을 가꾸는 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유행·명품에 치중하는 젊은 세대와 달리, 이들은 무조건 젊은 취향보다는 자신의 기호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까다롭게 제품을 고르는 특징이 있음
- 중장년층은 브랜드 충성도가 유달리 높아 이들을 겨냥한 제품은 장수 브랜드로 키우기 용이함
 - 이에 발맞춰 패션·화장품 업체들이 골드파파를 겨냥한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음
 - 중장년층을 겨냥한 캐주얼이 출시되고, 남성들의 노화 방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도 인기 품목임
 - 현대백화점이 올 상반기 남성의 명품 구매액을 2005년과 비교한 결과 52% 늘었는데, 이중 20~30대는 27~28%였지만 40~50대는 60% 안팎에 달했음
- 골드 파파의 등장은 세대 간 문화이식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설명
 - TV를 보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40~50대들도 이에 발맞춰 가는 것임
- 이미 일본에선 ‘美중년’들이 패션업계에서 막강한 소비층으로 자리잡은 상태임
 - 남성 월간지 ‘레옹(LEON)’은 40~50대 사이에 ‘레옹족’(일본의 美중년을 일컫는 신조어)을 전파시킴
 -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센스’라는 문구와 함께 고액 소득자들에게 패션·자동차·시계 등을 소개할 때마다 매진 사태를 빚고 있음

* ‘골드 파파 전성시대’(한국경제신문, 2008.8.1일자) 참조

□ 최근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가 올 상반기까지 중국의 물가관리 중점이었지만 최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PPI(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이 새로운 인플레 압력으로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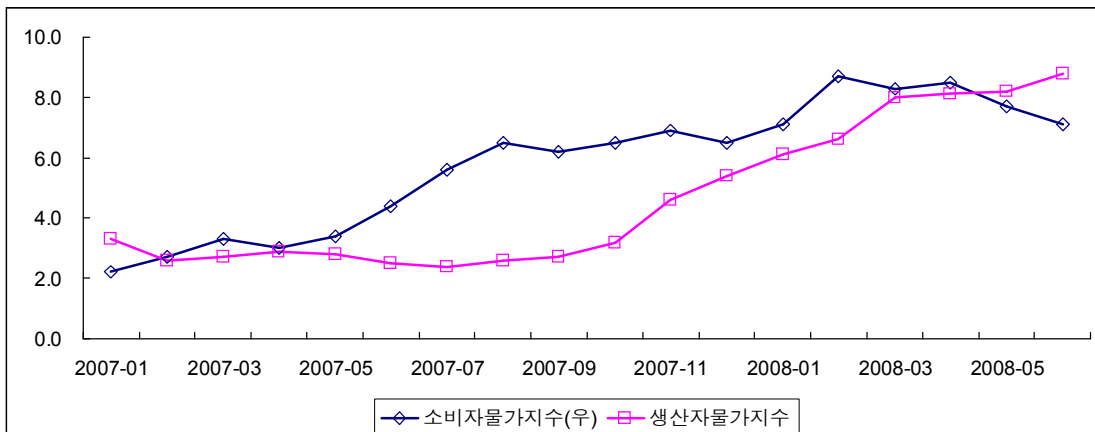
- 2007년 중국의 CPI 상승률은 4.8%에 달해 관리 목표치인 3.0%를 1.8%p나 상회하였으며, 2008년 2월에 8.7%까지 상승하였다가 6월 현재 7.0% 대로 낮아짐

- 2007년 육류와 식용유 가격상승에서 비롯된 CPI 상승 압력은 공급 능력이 회복됨에 따라 점차 해소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부분적 인플레이션이 전면적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에너지·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PPI 상승이 새로운 인플레 압력으로 대두됨

- 2007년 CPI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PPI는 2% 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 11월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08년 5월은 8.8%를 기록함으로써 CPI 증가율을 능가함
- PPI의 급격한 상승은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측면에서 유발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직면한 인플레 압력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 물가 추이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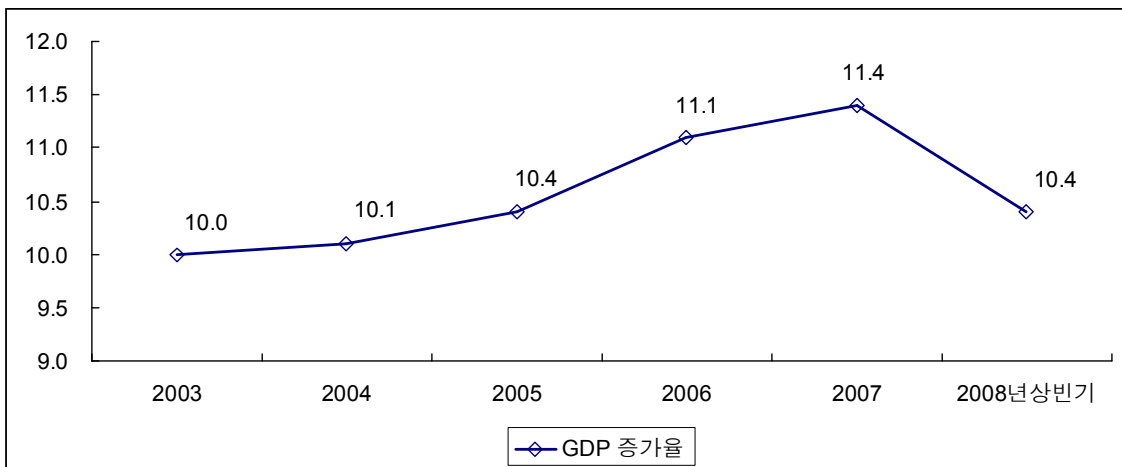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경제성장)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평균 9.6%의 고속성장을 이어왔지만 2008년 들어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03~07년 동안 중국의 GDP 증가율은 10.0%에서 11.4%로 1.4%p 증가하였으나 2008년 들어 10.4%로 하락함으로써 경제성장 둔화가 현실로 나타남
 - 중국은 발전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투자와 고용, 소비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흑자 감소에 기인함
 - 2008년 6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무역흑자는 전월 대비 각각 47.5%p와 20.0%p 감소하였음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경제의 인플레이 압력 가중과 경제성장률 둔화는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
 -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예상되므로 수출선을 중국 이외의 시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이 국내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도 동시에 필요함

□ 혁신과정에서 직면하는 리더십 10대 딜레마*

- CEO는 ‘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혁신과정에서 직면하는 리더십 딜레마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리더십 딜레마는 기업이 혁신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단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됨
 - (① 공식 vs. 비공식조직) 조직은 기회나 위기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공식조직보다 비공식 조직의 의존도를 높여야 함
 - (② 심사숙고 vs. 창발적 전략) 경영전략은 최고경영층의 심사숙고에 의해서 혹은 창발적으로 개발되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고객과의 성공적인 연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③ 실수 vs. 수정) 혁신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실수와 끊임없는 수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혁신적인 기업과 리더의 필수 요소임
 - (④ 즐기기 vs. 심각성) 리더는 혁신과정을 즐기는 동시에 심각하게 신제품의 결함을 찾아내 최고 신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어야 함
 - (⑤ 옹호 vs. 비판) 하나의 아이디어가 성공단계까지 가는데 리더는 반대자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게 하고 비판을 통해 오류를 여과시켜야 함
 - (⑥ 비용절감 vs. 가치제고)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함
 - (⑦ 협력 vs. 경쟁네트워크) 리더는 경쟁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또한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도 파악해야 함
 - (⑧ 개인 vs. 팀워크) 혁신 원천은 개인과 팀의 효과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성공함
 - (⑨ 탁월성 vs. 평등주의) 혁신적인 리더는 직원을 평등하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탁월성을 지향해 희귀하고 가치 있는 최첨단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함
 - (⑩ 결단 vs. 참여) 위협이 뒤따르는 혁신이라도 과단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직원들의 술선수법, 즉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이 글은 『매일경제』(2008.07.22)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효율과 형평

하나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수레의 양 바퀴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과 형평이다. 즉 효율과 형평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상생의 관계에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큰 이치이기도 하다.

유사한 맥락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반자 도지동 원왈반(反者 道之動 遠曰反)”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연계나 인간사에서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멀리가면 반드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이치를 중국의 철학자 왕충(王充, 서기80년)은 “양이 절정에 이르면 음을 위해서 물러나고, 음이 절정에 이르면 양을 위해 물러난다.(陽卦多陰 陰卦多陽)”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자연은 그 도(道)에 따라 음과 양, 베풀(仁)과 다스림(治), 평준화(형평)와 선별화(효율)의 양면성이 주기적 또는 순환적으로 바뀌어 나타나면서 크게, 길게 보면 늘 양자 간의 조화를 꾀한다.

시장에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자율원리가 존재한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따라 움직이면서 자연의 자연원리에 가장 충실한 실천의 장(場)인 것이다. 이처럼 자연이나 시장이나 둘 다 시스템의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구절을 남겼다. “부족한 것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라.(不患寡而患不均)” 이 구절에서는 많고 적음은 성장의 문제이고, 고르지 못함은 분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공자는 성장과 더불어 분배를 강조한 것이다.

어떤 유형의 시스템에서든 효율(성장지상주의)이나 형평(분배지상주의) 중 어느 하나만이 최선이 될 수는 없다. 효율(성장)과 형평(분배)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기에, 지나친 효율 추구도, 지나친 형평 추구도 모두 시스템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불은 약해지지 않는다.”**

- 탈무드 -